사 설

'사찰환경지킴이' 역할

조계종 총무원이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50여명으로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환경지킴이 활동을 펴겠다고 선포했다. 사찰환경보존을 위해 종단 차원으로 결성된 첫 기구라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편 기대에 앞서 사찰환경문제는 올해 교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따라서 위원회까지 구성하기에 이르렀는지 자괴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탄생하고 환경은 인간이 만들거나 다듬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근자에 와서 환경문제와 연관하여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런 갈등도 근원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치된 목표 때문에 일어난다. 이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화환경 심지어 사찰주변까지 개발이란 이름아래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것을 더이상 팔짱을 끼고 남의 일처럼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

왜 이토록 무지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들이 내몰려졌을까를 다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에겐 내것만 있어왔지 우리들의 것이 없는 상황속에서 오래 살아온 것도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다. 내것이 아니면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것이란 공간개념은 결국 자신과 환경과의 직결된 연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미숙성에 기인한다. 가령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이런 환경에 적응하여 살던 모든 생물체가 멸종을 하게 되고 생물이 멸종하는 환경이라면 인간의 생명도 온전하지 못하리라는 인과를 직시하지 못하는 미숙성이다.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찰환경이 극심한 훼손상태에 이르러서야 이제 겨우 위기감이 결집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지난 11월22일 전국의 3,000여명 조계종 스님들이 결집하여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일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과다한 욕심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면 거기에서 오는 재앙은 대대손손 돌이킬 수 없으며 인간과 자연은 하나임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제 환경위의 가동으로 모처럼 불붙기 시작한 올바른 외침으로 메아리쳐 잠자던 시민정신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지면 모처럼의 외침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이 성사될때까지 주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결집된 힘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사찰환경파괴 실태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사전예방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의 반대운동은 이미 늦은 것이다. 해인골프장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내 사유지의 국유화를 추진해 국립공원과 사찰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려니와 더욱이 문화유산들이 하루아침에 이룬 결과가 아니란 것을 깊이 통찰한다면 이젠 누구도 양심을 잠재우고만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개발과 보존은 언제나 상충되긴 하겠지만 보존을 전제로한 조화로운 개발에 관심을 둔다면 그 상충성은 영원한 평행선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기회에 관심과 의욕적인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을 성스럽게 보여주자.

열린마당

교육과 체벌

지난 11월27일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6개 분야별 개혁방안을 담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안 가운데 교사의 체벌금지와 존대말 수업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학자의 진단과 종립학교 교법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경어사용·체벌금지등 의무화 곤란

박영동 〈교법사·서울 동대부고〉

학생들의 독단성과 폭력성,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 등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교육의 변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교육을 앞세워 서구식 교육방법만을 고집하고 우리 교육현장에 실험적으로 투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물론 교사가 학생을 대함에 있어 체벌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개혁을 핑계삼아 교육의 수단까지 법제화하고 의무화한다는 것은 교사의 지도방법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현실을 무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교교육의 이상적 인간상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주체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교육의 방법은 당연히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한다.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상호 신뢰 속에 때로는 따뜻하게(慈), 때로는 엄격하게(悲) 학생의 수준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은 달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스승이 제자를 경책할 때 미워서만 때리겠는가?

이번 교개위 개혁안의 근본 취지는 찬성하나, 구체적으로 교사의 체벌금지와 존대말 사용 등을 법제화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랑의 매'도 안되면 교권 위축 우려

이학송 〈교법사·의정부 광동여고〉

교개위의 이번 방안은 정부에서 민주적인 교육대책 마련보다는 학생들의 방종과 교권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제도다. 우리교육이 민주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학교가 높은 의식수준에 올라갈 때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교사들도 관심이 있으면 간섭하게 되고 애정이 있다보면 최후의 교육수단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교사들의 경어사용도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가려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최근 영국에서 87년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킨 이후 오히려 부활해야한다는 국민이 3명중 2명꼴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미국식 제도를 따를 뿐 현직교사의 앙케이트나 실사를 거치지도 않는 것은 교육계의 파란을 예고하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무간섭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칭찬과 회초리 조화이뤄야 참교육

장보리행 〈학부모·경기도 고양시〉

교육의 현장에서 사랑의 매를 없애려는 움직임에 절대 반대한다.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치고 어찌 자녀가 남에게 매맞는 것을 좋아하겠는가만은 사랑의 매는 제외되어야 한다. 칭찬과 회초리는 교육을 이끌고 있는 두 바퀴와 같기 때문이다. 결코 칭찬만으로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된다고 볼 수 없다.

부모들 또한 학창시절이 있었다. 당시를 회고해 볼때 마음을 울리는 따끔한 회초리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던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교사가 존대말만 쓰고 회초리를 버렸을 때를 생각해보라. 철없는 아이들, 아직 자기주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 제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궐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체벌논란에 앞서 사회가 믿음이 없어진 것을 우려해야 한다. 자녀를 교사에게 맡겼을 때는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믿는 풍조가 회복되었을때 감정적인 회초리가 사랑의 매로 바뀔 것이다.

감정치우친 체벌 학생반감 부추겨

이준호 〈서울 심목중 1학년〉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개혁위의 교육개혁안을 환영한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또래라면 잘못이 있든 없든간에 체육시간에 선생님의 발에 차이고 밟히는 수난을 겪은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 학교에서는 체벌의 정도를 벗어나 감정에 치우친 비인격적인 체벌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던게 사실이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정도의 나이라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때다. 그럴때 선생님들의 모욕적 체벌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폭력에 길들여지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체벌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지나친 체벌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비과학적인 처사일 뿐이다.

체벌이 아닌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와 두터운 신뢰아래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와 교육주체로 인정하는 길이 이상적인 교육문화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진단

박선영 〈동국대 교수·교육학〉

"교사교육 선행돼야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매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필수적인 도구이었다. 서양의 원죄설은 교육자체를 금욕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게 하여 교육에서의 감시와 체벌은 단순한 관행의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동양에서는 가르치는 행위를 뜻하는 '교(敎)' 자체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어린이에게 타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에 임하는 것을 '교편(敎鞭)'을 잡는다 하고, 이때 '편(鞭)'은 매를 뜻하고 있다. 한국어의 '가르치다'에서 '치다'는 세게 자극을 주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이래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리면서 선진 민주국가의 교육현장에서는 체벌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은 일제에 의한 민족차별의 가혹한 모멸과 체벌의 식민지교육을 받아왔다. 과거의 체벌전통이 오히려 더욱 강화된 셈이다.

불법(佛法)에는 체벌이 없다. 물론 불교에도 선가(禪家)에는 방(棒)이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체벌로서가 아니라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격외(格外)이다. 누구나 다 미완성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보우스님은 유교적인 표현을 빌려 사람이 곧 하늘이라 했다. 이 사상은 천도교에 의해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천도교는 김기전과 방정환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하늘같이 존경하고 경어를 쓰게 하는 운동을 일으킨 바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와 경어사용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대찬성이다. 하지만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망설여진다. 교직은 어떤 형식에 의하든 학생의 인격에 간섭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체벌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독특한 인간관계에서의 특수한 인격적 교섭형식이다. 교사에 일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정한 교육애의 철학과 소신을 지니게 하는 철저한 교사교육이 전제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현대만평

박구원

다함께 보호해야…

목어

부처님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여러 마을을 행각하다 큰 비를 만났다. 두 사람은 급히 길옆의 기와굽는 가마속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그 가마속에는 소치는 여인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소치는 여인은 두 존자의 잘생긴 용모에 마음이 들떠 부정한 생각을 일으켰다. 비가 멈춰 세 사람이 가마에서 나왔을 때 마침 관상쟁이 구가리가 그곳을 지나게 됐다. 구가리는 소치는 여인의 얼굴에 음욕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비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사리불과 목련이 소치는 여인과 정을 통했다." 비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럴때마다 구가리는 못마땅하여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투서·음해의 과보

사리불과 목련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천상에 태어난 바가범이 스승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즉시 하늘에서 내려와 구가리앞에 섰다.

"당신이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바가범이 세번이나 타일렀으나 구가리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바가범을 나무랐다.

그때 구가리의 몸에는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종알만한 종기가 돋아났다.

구가리는 화를 못이겨 부처님을 찾아갔다. "사리불과 목련이 소치는 여인과 정을 통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타이르셨으나 구가리는 더욱 화를 냈다. 이상한 것은 구가리가 화를 내면 낼수록 종기는 자꾸 커졌다. 능금만 하다가 주먹만 하게 되고 다시 호리병만해졌다. 구가리는 몸이 달아올라 견딜 수 없어 연못속으로 들어갔다. 연못물이 금새 끓어 올랐다. 구가리는 종기가 터지면서 지옥에 떨어졌다.

요즘 남을 음해하는 투서가 판을 친다고 한다. 남의 뒤통수를 치는 투서는 불안하고 병든사회에서 자신이 없거나 속이 빈 사람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승가에서도 투서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니 구가리와 같은 과보를 받아도 좋단 말인가.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아는 것으로 남 업신여기면

아는 것이 조금 있다하여 스스로 뽐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기를 밝히지는 못한다.
〈법구비유경〉

협찬 수국사
주지 자용
TEL.(02)356-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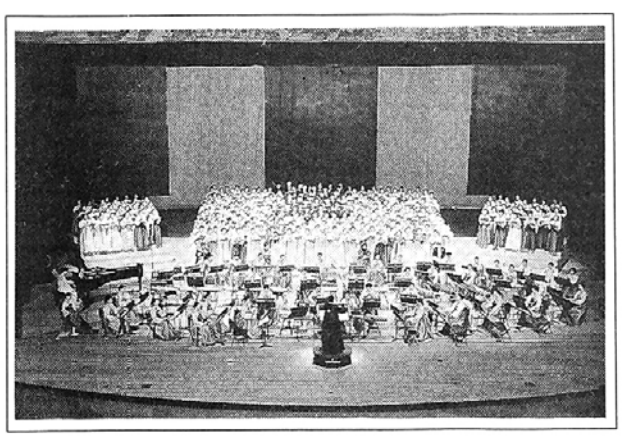
연말 불우 이웃 돕기

'96 광주 불교 합창 예술제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광주지역 5개 사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불자님의 가슴에 불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화합의 장으로 모십니다.

주최 : 광주불교 사암연합회
협찬 :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
후원 : 향림사, 증심사, 화엄사, 선덕사, 한마음선원
문의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376-3223~4
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375-9986

일시 : 1996년 12월 17일(화) 오후 7시
장소 : 남도예술회관(도청앞)



▣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동부요업(주)	대표 박문환	TEL : 0664-781-0987
김천유기상회	대표 김영호	TEL : 062-369-4848
2·7 자동차종합백화점	대표 성홍기	TEL : 062-371-2745
화신두루마기집	대표 이진우	TEL : 062-223-8910
범표신성기업	대표 김형수	TEL : 062-571-5566
일식전문 금송	대표 이금지	TEL : 062-222-0408
세화당한약방	대표 정갑봉	TEL : 062-225-3355
우신건축사무소	대표 문 근	TEL : 062-525-3130
현신종합건설(주)	대표 김완수	TEL : 062-941-3795
선덕사유치원	주지 행 법	TEL : 062-263-4160
천 종 사	대표 송창일	TEL : 0342-719-2253
LG프라자(신세계북구대리점)	대표 박상호	TEL : 062-525-7300
영 도(주)	대표 박원재	TEL : 062-651-5156

연 말 불 우 이웃 돕 기 '96 광 주 불 교 합 창 예 술 제